

영암 서부권 행정 중심청사 생겼다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개청 업무 시작 주민 맞춤형 서비스...문화 공간도 확보

영암군 삼호읍이 행정복지센터를 개청, 맞춤형 주민행복 만들기를 시작했다. 특히 개청된 신청사는 다양한 문화수요를 위한 공간을 마련, 삼호읍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영암 서부권 행정 중심청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영암군은 최근 삼호읍 중앙촌길 32 옛 삼호읍사무소 부지에 신축한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개최했다.

삼호읍 행정복지센터는 옛 읍사무소가 1983년 건축돼 낡고 협소했다. 대불국가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 등이 들어 서면서 사회적 이동인구가 급증, 지난

2003년 5월 1일 업무로 승격된 후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소한 주차장 또한 주민 불편을 초래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영암군은 신청사 건립을 결정했으며 지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리가온건축사사무소가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9월 공사입찰을



영암군은 최근 삼호읍 중앙촌길 옛 읍사무소 부지에서 신축한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개최했다.

통해 ㈜동도종합건설 외 5개사가 낙찰자로 선정됐고 10월 14일 착공해 지난해 12월 19일 준공에 이르렀다.

삼호읍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75억원이 군비로 투자됐다. 6,190㎡ 부지

에 지상 3층 연면적 2,108.48㎡의 행정복지센터와 56대 주차 가능한 3층 철골주차장, 45㎡의 창고,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건립됐다. 지난해 9월 임시청사에서 이전을 완료하고 정상업무는 이미

개시한 상태다.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1층에는 민원방문이 가장 많은 민원실과 복지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상담실 그리고 로비 및 공용공간이 조성됐다. 2층에는 사무실, 읍장실, 중·소 회의실, 문서고물, 3층에는 240석 규모의 대회의실, 다용도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농업인상담소, 속직실 등이 갖춰졌다.

영암군 관계자는 “삼호읍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 강화는 물론, 다양한 문화수요를 위한 공간까지 확보해 군민의 삶에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며 “삼호읍과 확산·미암면 등을 아우르는 미래의 영암 서부권 행정 중심청사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주목! 이사람



고길호 신안군수는 2일 오전 9시 공연장에서 열리는 3월 정례회 및 공직자 직무교육에 참석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2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발대식에 참석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일 오전 10시 군청 상황실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용역 외국전문가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신안군은 최근 읍면을 순회,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신안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확대

농가·공무원 2천명 대상 순회 교육

신안군은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제시와 인증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농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을 지향하고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이에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친환경농업 정책방

향 제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요령 등을 다뤘다.

신안군은 올해 친환경농업육성인증목표를 경지면적의 18%인 4,000ha(유기농 800ha 무농약 3,200ha)로 정하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의식 함양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유기농업 생산·가공·유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기로 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라디오 강진’ 보고 듣는 재미 ‘쏠쏠’

‘라디오 강진’이 봄 개편을 맞아 신규 프로그램 편성 및 기존 프로그램을 단장해 청취자들에게 새롭게 다가간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음악으로 하나 되는 하모니 강진 만들기’ 공모사업인 ‘라디오 강진’은 오감통 전남음악창작소 1층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라디오 강진’은 봄을 맞아 지역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매일 첫째 주 대표 코너인 ‘우리 소리를 찾아서’는 지역 소리꾼을 초청해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고, 강진 향토음악의 배경 설명과 전설을 재미있게 풀어주는 시간으로 꾸민다. 매월 넷째 주에는 강진읍 악인연합회 소속 가수들이 관객들과 신나는 라이브 공연을 함께 한다.

DJ아카데미 수료생이 직접 출연하는 ‘나도 DJ다’ 코너는 올해도 방송된다.

/강진=한태선 기자

“신안 흑산공항 건설 반드시 필요”

흑산공항 건설사업 토론회...친환경 건설도 주문

신안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공원계획 변경안 심의가 이달 열릴 것으로 전망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신안군청에서 ‘흑산공항 건설사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전문가(공항, 환경, 지역)와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전남도, 신안군 관계자가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흑산공항 건설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국민의 이동권 제공과 도서지역 관광활성화(관광향유권 확보) 및 해양영토 수호,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입을 모았다.

또 흑산공항 건설예정지가 다도해해양국립공원과 철새가 경유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보호 필요성이 있기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해 친환경적 공항건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안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공원계획 변경안 심의를 앞두고 흑산공항 건설사업 토론회가 지난달 28일 군청에서 열렸다.

흑산공항은 1,83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흑산면 예리 일원 68만3,000㎡ 부지에 1.2km 길이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된다.

흑산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현재 7시간 소요되던 1시간대로 단축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흑산공항이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목포CCTV통합센터 범죄예방 효과

개소 1년...251건 신고 처리 안전사고 예방

개소 1주년을 맞은 목포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사업비 15억 3,600만원(국비 7억6,800만원 등)을 투입, 593.6㎡ 규모로 시청 민원동 3층에 조성된 관제센터는 지난해 2월 20일 문을 열었다.

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보호 등 목적

과 기능에 따라 시내 전역에 분산 설치된 CCTV 1,176대를 통합 관리중이다. 통합관제시스템, 영상분석실 등이 설치돼 관제요원 29명이 4조 3교대 24시간 근무하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한다.

경찰 2명도 상환 근무에 임함에 따라 각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합동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가고 있다.

최근에는 관제요원인 임관옥씨가 모니터링 중 상동 소재 모처에서 남성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만지며 배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112 지령실에 신속하게 통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했다.

관제요원들은 지난 1년간 절도범 신고 53건, 청소년 비행신고 84건, 만취자 신고 43건, 교통사고 신고 25건 등 총 251건을 처리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또 범죄 및 교통사고 해결 등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며 민원 해결에도 기여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목포 010-3272-2765
- 011-632-0323
- 신안 010-4627-1472
- 영암 010-4624-8409
- 진도 010-3624-4777
- 완도 010-5619-7020
- 해남 010-8181-2627
- 강진 010-6646-1241

클릭! 내고장 소식



건강보험 광양구레지사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레지사는 최근 YWCA 회원과 함께 광양을 새마을금고 일원에서 윤리경영실천·공익신고 간담회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1위 달성과 윤리경영 실천 및 공익신고제도 홍보, 소비자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정봉순 지사장은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와 청렴 공단 이미지의 제고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목포급식센터 부모 현장 참관

목포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어린이 급식소 4개 시설을 대상으로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센터 역할 및 지원업무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복희 센터장은 “체험 위주의 이번 부모 현장참관 진행으로 어린이 급식소 관계자로부터 큰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목포=강성우 기자



진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진도군은 최근 국제지역아동센터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적응 유연성 프로그램인 ‘꿈꾸는 나무 날아라’를 운영했다.

이번 청소년 적응 유연성 프로그램은 자아 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위기와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목포 관광객 유치 워크숍

목포시는 최근 오거리문화센터에서 강상현 우리길진흥원 원장을 초청해 ‘현재까지의 목포관광 패러다임의 인식 전환 방안’에 대한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목포시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1,000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과 공무원들이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